

전문통번역사 인증을 위한 평가체계 개발 제안

김혜림* · 장애리
(이화여대)

1. 서론

작금의 세대는 인공지능이 화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 속도가 느리다는 제한점을 가진 인간은 이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대체될 것”¹⁾이라고 예언한 스티븐 호킹의 경고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고의 인간 바둑기사를 줄줄이 제패한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역량을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한 전설적인 상징이 되었고,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는 방대한 양의 의학 교과서, 임상 데이터, 학술 논문 등의 자료를 학습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항암 처방을 데이터에 기반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판단을 도

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축적과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 및 기계학습의 심화로 미래에는 인간 의사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혁명적 변화가 현재 통번역계에 서도 일어나고 있다. 기계번역의 정확도가 과거 대비 크게 높아지면서 언론들은 앞 다투어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순위로 통번역사를 언급하고 있다.²⁾ 실제로 기계번역의 발달로 간단한 일상회화에서 때로는 전문적인 수준의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또한 글자뿐 아니라 음성, 이미지, 그림, 사진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기계가 인식하여 번역하고 있다. 통역의 경우 음성 언어의 비정형성과 비완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번역과 달리 기계에 의한 대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전세계적으로 여행회화에서 국제회의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다양한 기계 통역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세계적인 정재계 거물이 집결하는 보아오포럼에서 일부 세션에 국한하였지만 공식적으로 기계통역을 사용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통번역업계에 직접 종사하거나,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국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통번역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통번역사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필적할만한 통번역 기능을 구현해내는 것이고 현재 그러한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이 현실화 과정에서 기계가 통번역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인간이 기계 통번역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통번역의 과정에서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통번역의 품질을 평가하여 해당 통번역의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전달할지, 수정과 보완을 할지, 혹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 통번역사라는 점이다. 결국 최종적인 의사 결정의 주도권은 역시 인간 통번역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날로 발전하여

* 본 논문의 주저자임.

1) <http://www.ciokorea.com/news/23240#csidx9d662975c35135180a9d7174f4357c2>

2) http://www.jobnjoy.com/portal/joy/correspondent_view.jsp?nidx=347081&depth1=2&depth2=1&depth3=1

정확도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기계 통번역의 최근의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기계 통번역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며 산출된 통번역 결과물에 대해 정확하게 품질을 평가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통번역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기계 통번역이 발달할수록 인간 통번역사의 전문 통번역 역량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빛의 속도로 발달하는 기계 통번역과 협업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뛰어넘는 혹은 기계와는 다른 차원의 인간 통번역사만이 갖는 독보적인 전문적 역량을 특화하여 부단히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 통번역의 전문적인 역량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여 증명하는 전문통번역인증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전문통번역사에 대한 직무적 성격의 정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문통번역능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고 이 때문에 전문통번역에 대한 평가 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통번역사 인증제 구축을 위한 평가체계 제안을 연구문제로 삼고, 통번역의 평가와 인증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번역 인증 및 평가제도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전문 통번역사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내용, 평가 주체, 평가 방식으로 나누어 전문통번역사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번역 평가와 인증

2.1 평가와 인증

우선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번역 능력에 대한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평가란 무엇인가? 국내 통번역 전문학술지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 『통번역학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총 4종 학술지의 창간호에서 2019년도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통역’, ‘번역’, ‘평가’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연구논문을 총괄해보

면, 평가 대상, 주체, 방법, 목적 등 분류에 따라 현재 국내 통번역학계에서는 평가에 대한 다층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평가 대상’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최근 2~3년간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평가 논문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법률번역, 출판번역, 문학번역, 사법통역, 군사통역, 동시통역 등 다양한 통번역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평가 연구가 이루어졌고 ‘평가 주체’의 관점에서는 통번역 교강사 평가, 독자 평가, 통역 사용자 및 청중을 대상으로 한 품질 평가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도구’의 관점에서는 번역 평가 기준, 사법통역 평가 척도, 통역 평가 기준 및 분류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평가 방식의 경우 ST와 TT의 비교를 통한 평가, TT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 등 평가 대상 선정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평가의 목적 역시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한 평가, 좋은 번역물 추천을 위한 평가 등 평가 대상, 방법,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단 2편(정호정 2018; 정연일 2006), 보고서가 1편(박혜주 외 2005)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평가와 인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평가와 인증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평가는 통번역이라는 행위의 결과물에 대해 진행되는 반면 인증은 행위 주체가 해당 능력을 갖고 있는지 통번역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중점이 행위 주체에 있다. 박혜주 외(2005)에서도 통번역 인증제를 “통번역사의 통번역 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간 큰 틀에서 이루어진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의 평가 작업과 프랑스 명작 평가연구단의 평가 사업은 모두 문학 번역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의 사례이나 문학번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통번역사 인증의 경우 국내에서 통번역사의 전문적 능력을 평가하여 인증을 주는 주체들이 민과 관을 포함하여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실정으로 아래 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 통번역사 인증 및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2 현행 인증 및 평가제의 문제점 분석

현재 국내에서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인증제를 알아보고 현

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전문통번역사 인증을 위한 평가체계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2.1 현행 인증 및 평가제

현재 국내에는 총 6종의 통번역 관련 인증 및 자격검정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번역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통역번역협회의 ITT(Interpretation & Translation Test)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의 국제회의 통역능력인증시험 및 번역능력인증시험,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사법통역·번역인 인증시험이 있고 번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험은 한국번역가협회의 번역능력인증시험(TCT, Translation Competence Test), 대한번역개발원의 번역실무능력평가와 자막번역 관련 한국자막번역원의 영어자막번역사 자격증 시험이 있으며 통역만을 대상으로 한 인증시험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의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과 한국자격교육협회의 사법통역인시험이 있다.

〈표 1〉 통역과 번역 분야별 국내 인증(자격검정)시험 현황

통번역	번역	통역
통번역자격시험(ITT) (국제통역번역협회)	번역능력인증시험(TCT) (한국번역가협회)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통역능력인증시험 & 번역능력인증시험 (이화여대통역번역대학원)	번역실무능력평가 (대한번역개발원)	사법통역사시험 (한국자격협회)
사법 통·번역인 인증시험 (수원지방법원)	영어자막번역사 자격증시험 (한국자막번역원)	

우선 통번역 관련 자격시험 중 일반인들에게 지명도가 있는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주관하는 통번역자격시험(ITT)은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³⁾에 따르면, ITT는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능숙하고 유창하고 적절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외국어 평가도구이다. 자격증 활용 목적은 대학교와 일반 기업에서의 어학능력 평가도구로 활용되어

졸업자격 취득 및 기업의 채용과 승진, 기업 내부의 인사고과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험 방식 역시 통번역이 아닌 외국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시험명은 통번역자격시험이나 실제로는 외국어 어학능력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민간자격시험으로서 지명도를 갖는 번역능력인증시험(TCT)의 경우 한국번역가협회 주관으로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해당 시험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본 시험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외국어 원서 이해능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직장인들의 번역능력을 향상시키는 물론 대한민국의 정신적 콘텐츠를 선도해 나갈 신인 번역가를 발굴하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으로 민간자격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 자격시험입니다.”⁴⁾

위의 내용을 토대로 TCT의 목적을 요약하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외국어 이해능력 증진, 직장인들의 번역능력 향상, 신인 번역가 발굴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ITT와 마찬가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적인 번역능력 검증을 통해 전문 번역사를 육성 및 배출하는 자격시험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민간 번역 대행사인 대한번역개발원이 주관하는 번역실무능력평가가 있는데, 해당 평가는 대한번역개발원이 자체 개발한 번역가직무능력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및 번역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ITT와 TCT가 외국어 어학능력 검정의 성격을 갖는다면 번역실무능력평가는 국제번역표준에 의거한 번역품질평가기준 ISO17100의 품질검증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 납품 기준의 번역 실무능력 평가에 초점이 있다. 해당 평가는 1~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대한번역개발원에 소속되어 전문 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⁵⁾ 그 외에 한국자막번역원에서 주관하는 자막번역사자격 시험이 있는데,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 양방향 자막번역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

3) <http://www.itt.or.kr/sbMn.php?pgNm=xhdlt>

4) http://www.kst-tct.org/testGiude_01.php 번역능력인증시험 홈페이지.
5) <https://cafe.naver.com/eompro/4923> 대한번역개발원 공식 인터넷카페.

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통역시험으로는 2017년부터 한국자격협회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법통역사 시험이 있다. 연 2~3회 시험이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법학개론, 직업윤리 및 해당 외국어로 현재 영, 중, 일어 외에 캄보디아어와 우즈베크어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와 같이 민간 협회나 번역 대행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외에 통번역 전문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통번역 자격시험 및 인증제도 있다. 현재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증시험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회의통역능력인증시험과 번역능력인증시험이 유일하다. 본 시험의 응시자격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의 졸업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시험과목은 통역시험의 경우 언어별 양방향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4과목, 번역시험의 경우 양방향 문학번역과 기술번역으로 역시 총 4과목이다. 그 외에 국가공인 자격증이 발급되는 통번역시험은 총 2종의 시험이 있으며 모두 특정 분야에 한정된 통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사법 통역 분야의 경우 2018년 국내에서 첫 번째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시행된 사법 통·번역인인증시험이 있으며 해당 시험은 올해부터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필기와 구술시험으로 나뉘며, 필기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한글 문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구술시험은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한글 문제 법원 직접 제공)이 있다. 평가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를 포함한 최소 10개 언어로 전국에 있는 사법통역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⁶⁾ 작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행한 인증시험의 경우 총 146명이 응시했으며 그 중 21명이 인증통역인 자격을 취득하였고, 시험합격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언어에 충분히 숙달되었다고 평가되는 13명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준인증통역인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 외에 국가 공인 자격증을 부여하는 통역시험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이 있다. 해당 시험은 필기와 구술시험(대화통역:국내 의료인과 외국인 환자 간의 의료통역 시나리오에 대한 통역 대응, 문장구역: 전문 의료 문서에 대한 직독직해 능력)으로 나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6) 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용역 제안 요청서(법원행정처 2019년 5월)

총 6개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에 개최된 제3회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의 최종 합격률은 4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의료통역능력 인증서가 발급된다.

지금까지 현재 국내에서 통번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및 자격검정시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통번역을 모두 포괄하는 시험은 3종, 번역시험 3종, 통역시험 2종이며, 국가 공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인증시험은 사법과 의료 분야 통역시험 총 2종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회의 통역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통번역 능력을 평가하는 인증시험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이 유일하나 응시대상이 이화여대 GSTI 졸업생으로 한정되어 시험의 보편성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통번역 관련 인증시험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현행 국내 통번역 관련 인증(자격검정)시험 현황

구분	시험명	주최 기관	평가 언어	평가 체계	응시 자격	자격 종류
통번역	통번역 자격시험 (ITT)	국제통역 번역협회 (2010년~)	통역: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전문: 1급, 2급. 비즈니스: 1급, 2급	제한 없음	(비공인) 민간자격
	국제회의통역 능력인증시험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1998년~ 번역:2005년~)	통역: 영어, 불어, 중어, 일어. 번역: 영어, 불어, 중어, 일어.	합격 /불합격	이대 GSTI 졸업생	(비공인) 민간자격
	사법 통·번역인 인증시험	수원지방법원 (2018년~)	영어, 일어, 중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등	인증 /준인증	제한 없음	국가 공인 자격
번역	번역능력 인정시험 (TCT)	한국번역가 협회 (1994년~)	영어, 일본어, 중국어(북경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1급:직업번역 능력인정시험, 2급:전문번역 능력인정시험, 3급:일반번역 능력인정시험	제한 없음	(비공인) 민간자격

	번역실무 능력평가	대한번역개발원	영어, 일어	1등급: 우수, 2등급: 준수, 3등급: 평이, 4등급: 미흡, 5등급: 불량	3년 이상 경력의 번역가/대한번역개발원정회원 및 번역가직무능력 훈련 이수자	
	영어자막 번역사 자격증시험	한국자막번역원	한영 양방향	1급 (Professional), 2급 (High-Level), 3급 (General)	제한 없음	(비공인) 민간자격
통역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2016년~)	영어, 중국어, 일어, 아랍, 몽골어	합격/ 불합격	제한 없음	국가 공인 자격
	사법통역사 시험	한국자격교육협회 (2017년~)	영어, 일본어, 중국어(북경어), 독일,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필리핀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네팔어 등	합격/ 불합격	제한 없음	(비공인) 민간자격

2.2.1 현행 인증 및 평가제의 문제점

현행 인증 및 평가제를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전문적인 통번역능력을 평가하는 공신력을 확보한 공적 인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둘째,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평가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1) 공신력을 확보한 공적 인증 시스템 부재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적인 인증을 전제로 한다. 전문 통번역 분야에서의 공신력이란 인증제도를 통해 전문 통번역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증자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포함하여 통번역 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해당 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때 해당 제도가 갖게 되는 신뢰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앞서 현행 통번역 관련 인증 및 자격 검정 시험에 대한 현황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내에는 국제회의 통역

등을 포함한 전문 통번역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이 부재하다. 현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전문 통번역능력 인증을 위해 국제회의통역능력인증시험과 번역능력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응시자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생에 한정되어 있어 시험의 보편성 면에서 한계를 가지며 평가 및 인증의 주체 역시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이라는 특정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신력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박혜주 외(2005)는 민간 인증제의 문제점으로 사회적 공신력이 취약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효용성의 확보 차원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현재 전문 통번역 분야의 인증시스템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통번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어 어학능력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통번역 능력에 대한 평가로는 미래 인공지능 통번역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을 초월하는 혹은 인공지능과는 차별화된 ‘전문적인’ 통번역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공신력 있는 전문통번역능력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배경이다. 공신력 있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통번역 수요가 만족될 때, 인공지능 통번역과 전문 통번역사의 공존과 차별화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증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번역 활동 연계가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전문 통번역사의 처우와 보상 및 지위가 보장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평가체계의 미확립

현행 통번역 관련 인증시험 현황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의 평가체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평가체계 안에는 평가의 내용, 방법, 평가 결과에 대한 자격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통번역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자격시험인 통번역자격시험(ITT)의 경우 외국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테스트를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하며, 평가 지문은 전문 (Professional)과 비즈니스(Business)로 구분하여 전문 통번역은 인문사회, 경제 경영, 과학기술 분야 한국어 및 외국어 지문과 통번역사 윤리, 비즈니스 통번역은 무역, 상담, 홍보, 광고 등 기업 직무 관련 지문과 기본적인 비즈니스 단

문이 출제되고 있다. 시험결과는 ITT시험위원회의 Proficiency Guidelines Interpreting & Translation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과 비즈니스 등급 내에서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전문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지만, ITT 시험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능숙하고 유창하고 적절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객관적인 외국어 평가도구”로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 통번역능력보다는 외국어 어학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 분야 민간자격시험인 번역능력인정시험(TCT)의 경우도 등급별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1급(직업번역능력인정시험), 2급(전문번역능력인정시험), 3급(일반번역능력인정시험)으로 나뉘며 그 중 1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문번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TCT의 경우 시험 내용이 주로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B→A 번역으로 집중되어 있다. 1, 2 등급의 경우 B→A 방향은 인문사회, 경제경영,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 총 4개 지문을 평가하지만 A→B방향의 경우 인문과학일반 및 사회과학일반과 관련된 하나의 지문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3급의 경우 A→B방향은 아예 시험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듯 단일 언어 방향에 치중된 번역 평가 기반으로는 전문번역가의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으로서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회의통역능력인증시험과 번역능력인증시험의 경우 통역시험은 순차와 동시통역 AB 양방향 총 4과목, 번역시험은 문학과 기술번역 AB 양방향 총 4과목을 평가하며 등급제가 아닌 합격/불합격의 방식으로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통역시험의 경우 전체 4과목을 모두 합격해야만 인증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번역의 경우 언어 방향에 따라 문학번역 AB 및 기술번역 AB 합격자 혹은 문학번역 BA 및 기술번역 BA 합격자에게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통번역 관련 인증 및 자격시험은 소위 전문적인 통번역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내용이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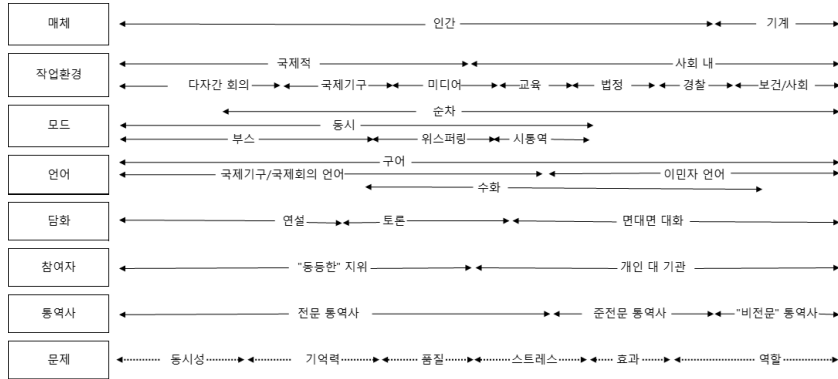
문통번역능력에 대한 내용과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의 체계를 확립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전문통번역능력의 인증시스템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공신력 있는 전문통번역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평가체계 수립과 관련하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전문 통번역 인증제를 위한 평가체계 제안

3.1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개념 정의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연일(2006)의 주장처럼 전문통번역 능력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전문 통번역사들이 수행하는 통번역의 작업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 전문 통번역사의 작업 범위와 관련하여 번역의 경우 문학번역에서 기술번역에 이르기까지, 또한 전문적인 수준에서 기초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출발 텍스트는 도착텍스트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진 번역 대상으로서 특별히 전문번역가의 작업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 통역의 경우 아래 그림 1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측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전문통역사가 수행하는 통역 범주로서, 작업 환경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다자간 회의 혹은 국제기구 간 회의나 TV등을 포함한 미디어 통역이 이에 해당하며, 통역 방식은 주로 부스 내에서 진행되는 동시통역 혹은 순차통역을 사용하고, 통역하는 담화 내용은 주로 연설문이나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통역 유형을 국제회의통역과 커뮤니티통역으로 나눈다면,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전문통역사가 수행하는 통역의 범주는 국제회의통역이다.

그림 1. 통역 이론의 영역 및 차원⁷⁾



그렇다면 국제회의통역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통번역능력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우선 번역능력과 관련하여 정연일 (2006: 7)은 번역인증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며 핼(Pym, 2002)의 번역능력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재인용하고자 한다.

- 해당 ST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타당한(viable)’ TT의 연쇄(TT1, TT2...)를 생산하는 능력
- 이 연쇄에서 단 하나의 타당한 TT를 신속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선택하는 능력 [‘타당성’의 기준 : 특정 독자층 또는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나 이상의 대안’ : 대안을 찾는 데는 비록 직관적 수준에서나마 추상적 사고능력이 요구됨.

핼(Pym)은 위와 같이 번역능력을 정의하며 현재 번역사들이 당면한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닌 정보 과잉임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Pym 2002; 정연일 2006: 8 재인용).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이 번역작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현시점에서 검색능력이 번역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정보에 대한 검색과 처리 및 선별 능력은 번역능력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나 기계번역과 번역 소프트웨어 기술이 날로 발달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시점에서 번역사가 스스로 번역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 외에, 기계를 통해 산출된 번역결과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번역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Pym의 번역능력 정의 중 ‘TT의 연쇄를 생산하는 능력’과 ‘TT의 연쇄 중 단 하나의 타당한 TT를 신속하게 선택하는 능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번역능력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하나의 ST에 대해 단일한 TT만 생산 가능하다면 전문가라고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 이상의 다양한 TT의 대안을 산출하고, 그 중 번역의 목적과 상황 그리고 기능에 부합하는 하나의 TT를 신속하게 선별하며, 자신이 산출한 통번역 결과물에 대해 자신감 있게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번역능력이다.

통역에 대해 살펴보면, 궤히하커(2009: 24)는 통역을 번역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번역의 개념적 틀 안에서 통역의 차별성을 ‘즉시성’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통역을 정의하고 있다.

“통역이란 단 한번 제시된 출발어 발화를 기반으로 다른 언어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번역의 한 형태이다.”

통역의 경우 번역과 달리 출발어의 발화가 일회성으로 제공되고 즉시적으로 도착어가 산출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TT를 산출하여 그 중 타당한 TT를 선별하는 전문번역능력과 달리 매우 신속하게 하나의 정확한 도착어를 생산하여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 전문통역능력이다.

3.2 전문 통번역 인증제를 위한 평가체계 제안

본 절에서는 전문 통번역 인증제 실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평가 내용, 평가 주체, 평가 방식으로 나누어 평가체계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3.2.1 평가 내용

앞서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해 거시적인 차원의 정의를 내렸다면 본격적인

7) 그림 출처: 프란츠 궤히하커(2009: 43)

평가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의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스투어트 캠벨은 “번역물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 번역의 품질에 관한 합의뿐 아니라, 번역 능력(Translation competence)에 관한 정의가 있어야만, 평가의 유효성(validity)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평가를 위한 번역능력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캠벨은 번역능력을 ‘텍스트 능력’, ‘성향’, ‘모니터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텍스트 능력은 도착언어의 문법과 어휘를 구 이상의 차원에서 다룰 줄 아는 잠재적 능력을 의미하고, 성향은 번역하는 태도 즉 끈기를 의미하며, 모니터링 능력은 자신의 번역물의 품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실시간으로 교정 가능한 능력을 의미한다(Campbell 1998, 김진아 외 2002 에서 재인용). 그 외에 정연일은 브르넷(Brunette, 2000)이 제시한 논리성, 목적성, 맥락, 언어규범의 번역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시험 대상으로서 번역능력의 구성요소를 ‘텍스트의 완결성’, ‘목적에의 충실성’, ‘번역 환경 요인의 반영’, ‘언어 규범’으로 대분류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다(정연일 2006: 13). 또한 구하나(2000)는 번역학에서 제기된 용인성에 대한 개념을 번역 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원문의 의미가 도착어에서 정확히 재표현되는 것”을 용인성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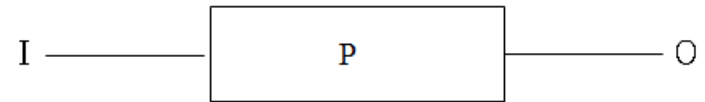
통역의 경우, 전문통역사가 수행하는 국제회의통역에 관해 카이저(Keiser 1978: 17, 궤히하커 2009: 258에서 재인용)는 “지식(언어 숙달 및 종합적인 배경 지식)과 ‘개인적인 자질’을 강조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개인적인 자질은 통역사의 의미도출능력, 적응력, 집중력, 기억력, 대중연설에 타고난 능력과 호감이 가는 목소리가 포함된다”. 또한 궤히하커(2009: 290)는 통역의 평가와 관련하여 “성적은 내용(출발어-도착어 대응)과 도착어로의 발표력, 즉 표현과 말투 모두를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임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통역 품질에 대한 평가 기준 수립을 위해 힐더군트 빌러(1986)는 총 47명의 AIIC회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억양, 듣기 좋은 목소리, 전달의 유창성, 논리적 통일성, 의미 일관성, 완결성, 올바른 문법, 올바른 용어, 적절한 문체를 포함하는 아홉 가지 통역사 산출물에 대한 4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평가 항목이 ‘중요’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쿠르츠(Kurz)가 동일한 항목으로 의학 종사자, 외교관, 엔지니어 등 서로 다른 회의 참석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역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후의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자들은 통역의 완결성, 표현의 명확성, 정확한 단어 사용 등과 같은 기준을 공통적으로 중시하지만 회의 규모, 주제, 사용자의 연령, 성별, 동시통역 사용 경험 등 여부에 따라 통역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궤히하커 2009: 237-238).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역과 번역의 평가 내용이 통번역 능력에 대한 정의 및 평가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항목과 층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통번역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공적 인증제 구축을 평가의 목적으로 삼는 만큼 통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하되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관점에서 통번역의 기본으로 돌아가 가장 핵심적인 평가의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통번역의 프로세스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다니엘 질(1994: 40)의 아래 그림일 것이다.

그림 2. 포르세싱 슈퍼미⁸⁾



위 그림에서 I는 Input(입력물), 즉 출발 텍스트 및 발화이고, 중간의 P는 Proccs(과정), 즉 통번역사가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며, O는 Output(산출물)로 통번역의 결과물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통번역의 프로세스를 기본 틀로 하여 앞서 논의된 다양한 통번역능력에 대한 정의와 평가 기준을 고려할 때 통번역은 출발 텍스트 혹은 발화에 대한 내적 ‘이해’와 외적 ‘표현’의 과정을 거쳐 통번역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일련의 소통적 행위라 하겠다. 이와 같은 통번역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전문 통역 및 번역 능력 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8) 그림출처: 궤히하커(2009: 85)

<표 3> 전문 통역능력 평가 내용 제안

이해	ST에 대한 정확성	내용 질적(의미) 정확성
		내용 양적(커버율) 정확성
		논리 일관성
표현	TT 표현의 완결성	이중 언어 구사력
		용어/단어/표현의 적합성
		이해용이성
전달력	통역 결과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부가적 변수	발음, 목소리, 엑센트, 안정적 톤과 적절한 발화속도 등 대중연설능력

우선 전문 통역능력 평가 내용은 이해와 표현 그리고 전달력으로 구분된다. 이해의 경우 통번역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원문과 통역 결과물 간에 유사성과 상이성을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ST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⁹⁾. 특히나 소통성을 강조하는 통역의 특성상 원문의 ‘단어’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의미’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며 ST에 대한 정확성은 원문 의미의 정확성, 내용의 양적 커버율, 논리의 통일되고 일관된 전달을 구체적인 평가지표로 삼는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차원에서는 TT표현의 완결성이 핵심적인 평가 항목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완결성은 도착어의 언어적 완결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언어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이중언어 구사력, 도착어권 문화나 특정 전문분야에 적합한 용어와 표현의 선택, 정확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이해용이성으로 구성된다. 전달력의 경우 통역 내용의 정확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통역 결과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발음, 목소리, 엑센트, 안정적 톤 등 요소가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박현일(2019: 58-59)과 최문선(2018: 217-218)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가 아닌 원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적인 통역 청중이나 특히 TV미디어 통역을 듣는 청중일 경우 듣기 좋은 목소리와 적절한 발화 속도, 유창성 등이 통역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통역사의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 강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

9) 슬레징어(Shlesinger 1997); 한정은(2003: 155)에서 재인용.

의 회의에서 수많은 청중을 상대로 통역을 수행하는 바, 전달력 측면의 평가 요소 역시 이해와 표현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 번역능력에 대한 평가 내용 제안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전문 번역능력 평가 내용 제안

이해	ST에 대한 충분성과 충실성	내용 정확성
		논리 일관성
표현	TT표현에 대한 용인성과 가독성	ST 언어간접배제/ TT언어규범준수
		이해가능성/관용어법성 ¹⁰⁾
기능 실현	번역 목적에 대한 이해와 실현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번역물 용도 이해
		독자에 대한 효과의 등가

전문 번역능력에 대한 평가 내용 역시 ‘이해’와 ‘표현’으로 구분되며 통역과 달리 번역은 기능 실현이 추가되었다. 본 평가 내용에서의 ‘이해’는 ST에 대한 충분성과 충실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분성(adequacy)’은 투리(Toury)¹¹⁾의 정의를, ‘충실성(Faithfulness)’은 존 험블리¹²⁾와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2005, 2007)에서 정의¹³⁾한 내용을 차용하여 응용한 것으로 ST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TT 표현에 대한 용인성(acceptability)과 가독성(readability)¹⁴⁾은 역시 각각 투리와 영미문학연구회 번

- 10)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도착어에서 의미의 이해 가능성), 관용어법성(Idiomatcity: 번역문에서 사용된 언어형식의 자연스러움) (Wendland 1991: 9; 구하나 2010: 12에서 재인용)
- 11) 투리는 원문의 규범을 준수하는 번역자의 번역을 ‘충분성(adequacy)’으로, 목표문화의 규범을 준수하는 번역을 ‘용인성(acceptability)’으로 정의하였다(Toury 1995: 56-57; 구하나 2010: 5에서 재인용).
- 12) “가능한 한 최대한 원문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도착어의 용법을 준수하는 번역의 속성”(존 험블리 외 2005:130; 구하나 2010: 10-11에서 재인용)
- 13) 충실성: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 구절, 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를 판별한다”(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2007; 구하나 2010: 12에서 재인용).
- 14) 가독성: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원에서 어색

역평가사업단(2005, 2007)의 정의를 참고하여 목표문화권의 언어규범에 맞게 번역문이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ST 언어의 간섭을 배제하고 TT의 언어규범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가독성 차원에서 목표문화권의 독자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능 실현은 원저자의 의도와 번역의 목적 및 기능 실현에 중점을 두는 평가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즉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통역과 달리 비교적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갖는 번역에 특화된 평가 내용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번역자가 번역물의 용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ST와 TT 독자의 효과의 평가 달성 여부이다.

지금까지 전문 통번역능력 인증제 구축을 위한 평가 내용을 제안하였다. 실상 위에서 제시된 평가 항목들은 기존의 통번역 능력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을 참고하여 전문 통번역 능력 평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능력과 평가지표를 선별하여 구성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평가 내용들은 전문 통번역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을 통번역의 정보처리 단계에 맞춰 정리한 것으로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 구축을 위한 평가의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평가 내용에 대한 논의의 진전과 공론화 그리고 평가 목적에 따른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평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평가의 주체와 방식에 관한 제안을 이어가고자 한다.

3.2.2 평가 주체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가 주체이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효과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민간 협회나 번역기관에서 주관하는 통번역능력 자격시험 등은 확인 결과 평가 주체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특

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다만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낮은 역어나 구문을 선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역자의 선택을 존중한다”(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2007; 구하나 2010: 12에서 재인용).

정 대학 교수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대통역번역대학원의 통역 및 번역능력 인증시험의 경우도 평가자가 통번역 교수자와 통번역사로 한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기존의 통번역 관련 자격검정시험의 경우 평가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평가자에 대한 정보나 요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 통번역능력의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것은 통번역 평가 전문가 풀이다. 통역의 경우 평가 전문가 풀 안에는 통역 이론 연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통역 교수자, 국제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통역사, 통역 사용자에게 속하는 통역 의뢰인, 통역 청중, 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토록 다양한 인력들로 평가 전문가 풀을 구축하는 것은 통역 평가 주체에 따라 통역 품질평가의 기준과 강조점 및 기대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Schjoldager 1996: 189, 한정은 2013: 163에서 재인용; 박헌일 2019; 최문선 2018 등). 전문통역사의 경우 국제회의 현장에서 통역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만큼 기존의 통역전문가에 의한 능력 평가 외에 서비스 사용자인 통역 의뢰인, 청중, 연사 등 통역 시장 주체의 평가도 반드시 전문통역능력 평가자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번역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 전문가 풀 운영을 제안하며 번역 이론 연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번역 교수자, 출판번역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번역사, 번역 사용자에게 속하는 번역 의뢰인 (기관, 출판사 편집인 등), 번역물 독자, 번역 비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2.3 평가 방식

평가 방식은 전문 통번역 능력 인증제가 기본적으로 통번역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통번역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과정 중심의 형성평가가 아닌 결과 중심의 총괄적 평가 방식을 채택하며 정성평가(전면평가, 부분평가)와 정량평가(오류감점)를 병행한다. 또한 평가 방식에 있어서 예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회 일관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평가자의 주관성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 외에 평가 내용에 있어서도 각 평가 주체들의 평가 기준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 만큼 평가지표를 구

체화하여 평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평가자 간 편차 조율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에 대한 점수 부여는 최상과 최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값을 부여한다.

그 외에 전문 통번역능력 인증제는 등급제가 아닌 합격/불합격의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취득한 인증 자격증은 연한을 두어 전문 통번역사가 재등록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방식의 경우 통역과 번역으로 나누어 필수시험과목을 통과하거나, 통번역 경력자의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통역과 번역 평가 시의 언어방향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으로 하되, 통역은 양방향(A↔B) 모두 통과 시에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번역은 한방향(A→B 혹은 B→A) 혹은 양방향(A↔B)으로 나누어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 통번역 기술의 발달로 통번역사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통번역과 이중언어 역량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인증제 구축을 위한 평가 체계 수립에 중점을 두고 논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국내에서 민간 및 공적 기관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통번역 인증 및 자격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국내에는 의료와 사법 분야에 국한하여 통번역 공인자격증이 발급될 뿐, 국제회의와 전문 출판번역 시장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통번역능력을 검증하는 공적 인증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국제회의통역능력인증시험과 전문번역능력인증시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이대 통대 졸업생들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폐쇄형 인증제도로 해당 인증시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전문 통번역능력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이화여대를 포함하여 현재 전문적으로 통번역을 가르치는 복수의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 공적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인증시험의 평가 내용, 평가 주체, 평가 방식 등 일련의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통해 우수한 전문 통번역사를 배출하게 된다면 공적 인증제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전문 통번역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며, 이는 곧 공적 인증제를 통한 전문 통번역사의 금전적 보상과 처우 보장 등 효용성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본 논문에서는 공적 인증제 구축을 위한 선행 단계로서 평가 체계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첫째, 평가 내용의 경우 통번역의 프로세스가 입력물(ST, 발화)에 대한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통번역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임에 착안하여, 통역과 번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지적 정보처리의 핵심인 ‘이해’와 ‘표현’ 그리고 통역과 번역의 특성이 반영된 ‘전달력’과 ‘기능 실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구성하였다. 통번역 능력 및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통번역 평가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평가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통번역 능력의 기본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와 표현의 틀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평가 내용은 평가의 목적과 주체 및 방식에 따라 평가 항목의 증감 혹은 구체화를 통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수자, 전문 통번역사 등 통번역전문가 외에 시장 지향적인 관점에서 통번역을 직접 사용하는 청중, 의뢰인, 출판인, 비평가, 독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 전문가 풀 운영을 제안하였다. 셋째,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평가 주체가 다양해지는 만큼 평가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예비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역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 구축을 위한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지만, 실상 전문가는 오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것이고, 그 과정마다 역시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바라기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고 있는 전문 통번역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 체계가 통번역 교육의 과정에서 교수자의 교육 목적을 수립하는데 혹은 통번역 학습자의 학습 방향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밑그림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려영, 김혜림 (2015) 「한국 공공기관 중문 웹사이트 오류 분석」, 『번역학연구』 16(3): 55-84.

구하나 (2010) 번역평가와 “용인성(acceptabilité)”, 『통번역학연구』 13(2): 1-28.

구하나, 이영훈 (1999) 「기테온 투리의 ‘용인성’ 개념과 그 해석」, 『번역학연구』 11(4): 25-56.

김한식 (2014) 「대학원 과정에서의 동시통역 평가 비교 -한일 동시통역 교육의 관점에서-」, 『일어일문학』 (63): 61-74.

김혜림 (2008) 「중한 번역물에 대한 독자의 평가 규범 -웨난(岳南) 작품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0(2): 27-46.

김혜림 (2011) 교육에서의 통역평가 기준에 대한 고찰: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3(2): 71-91.

김혜영 (2009) 「번역교육에서의 동료 평가 및 동료 감수의 효과」, 『통역과 번역』 11(2): 39-63.

박헌일 (2015) 「한국의 군사통역 품질평가에 대한 고찰: 통역장교의 평가 결과물 보고」, 『통번역학연구』 19(2): 159-181.

박헌일 (2019) 「칭중의 통역품질 평가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23(1): 45-64.

박혜주 외 (2005) 『번역사 인증제와 번역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손지봉 (2006) 「문학번역 평가기준에 관하여」, 『통역과 번역』 8(1): 1-20.

신지선 (2010) 「번역교육시 번역평가모델 활용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3): 121-142.

윤지관 (2013) 「문학번역평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역과 번역』 15(2):

175-190.

이상원 (2004)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 『통역과 번역』 6(2): 39-58.

이상원 (2006) 「최근의 번역 비평 서적에서 나타난 번역 평가 규범 분석」, 『통역과 번역』 8(1): 123-141.

이영훈 (2010) 「프랑스 명작소설 한국어 번역 연구를 위한 번역평가 시스템 개발」, 『통역과 번역』 12(2): 149-180.

이지은, 장원경 (2015) 사법통역인의 순차통역 평가 사례 연구, 『언어학연구』 20(1): 99-118.

이향 (2010) 「번역품질평가의 현황과 과제」, 『번역학연구』 11(2): 107-12

이혜승 (2008) 「동시통역 품질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고찰」, 『통역학연구』 12(1): 233-262.

장혜선 (2014) 「번역평가를 위한 번역오류 기술 및 분류에 관한 소(小)연구 -통번역대학원 수강생들의 일한(JK) 번역물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1(62): 99-132.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179-205.

정연일 (2006) 「번역능력인증시험의 맥락에서 살펴본 번역능력의 정의」, 『통번역학연구』 10(1): 1-15.

정철자 (2012) 「통역 평가 비교가능성: 교육상황에서의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16(2): 219-239.

최문선 (2018) 「TV통역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생방송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3): 195-224.

프란츠 피히하커, 이연향 외 옮김 (2009) 「통역학 입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국외대 GSTI BK21 번역부 자격검정팀 (2002) 「번역 품질평가에 관한 小考」, 『외국문학연구』 (11): 4-124.

한정은 (2013) 「통역 품질의 개념과 평가 주체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7(2): 77-87.

Pöschhacker, Franz (2001) ‘Quality Assessment in Conference and Community Interpreting’, *META* 46(2): 410-425.

[Abstract]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Proposal for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Kim, Hye-rim · Chang, Ai-li
(Ewha Womans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echnologies have made progress day by day. In this background, many discuss the crisis of huma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oday. Ironically,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growing social demand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who are equipped with abilities to assess and correct errors of machin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based on the notion that thei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kills will still be superior to that of machines. To keep up with this trend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nd to develop an evaluation system for securing public confidence. As such,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xis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related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review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kills and evalu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and review, the study proposes an evaluation system for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three areas: content of evaluation, agent of evaluation, and method of evaluation. Regarding the content of evaluation, evaluation elements are specified as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being key information processing indicator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conveyance” and “function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agent of evaluation, it is proposed that a pool of evaluation experts—consisting of not

only exis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xperts (professors,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but also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sers (clients, audience, critics, and readers)—be gathered as assessors. As for the method of evaluation, it is suggested that a pre-evaluation system be introduced to apply evaluation criteria consistently among evaluators.

- ▶ Key Words: certification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content of evaluation, agent of evaluation, method of evaluation, evaluation system
- ▶ 주제어: 전문 통번역사 인증제, 평가 내용, 평가 주체, 평가 방식, 평가 체계

김혜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hyerim@ewha.ac.kr

관심분야: 문화번역, 통번역교육, 대조언어학, 어휘론

장애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aili0022@naver.com

관심분야: 지역사회통역, 기계 통역, 기계 번역, 문화능력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31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8일